東亞日報
夕刊
本紙朝夕合十面
發行所 東亞日報社
京城府光化門通一三九番地
電話 光化門 一九〇〇

社說

「軍縮」斡旋하는 英國 滿洲方面에 또 軍備擴張

一

世界大戰以後 歐洲政局에 있어서 各國相互間에 이러저리 얽키어진 複雜의 關係속에 容易히 갈기어 들어 드러가지않고 어떠한 手段으로든지 항상 그 傳統的 「名譽의 孤立」에 彷彿한 中立的 態度를 固守하게 된 것은 英國의 一貫지론이라고도 할수있을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最近 數三年來로는 歐洲의 一般 軍縮事業을 될수있는대로 實現하여 보려고 여러가지로 斡旋、努力하는 形跡을 가지고 있는것은 不掩의 事實이다. [illegible]

二

[illegible]

三

勿論 英國側으로 말하면 [illegible] 滿洲方面의 軍備를 充實케 하는데에는 그에 相當한 [illegible]

米政府重大協議 九個國會議召集? 中國보다 對日武器輸出이 多量 米國一部外交界觀測

【華盛頓電通】 對中政策에 關한 日本外務當局談에 對하야 [illegible] 米國政府의 態度如何를 各方面에서 注目하고 있는 此際 [illegible] 九個國條約締結國會議가 招集될 [illegible]

蘇聯邦의 第二次 五個年計劃의 實狀 리더래리—따이제스트誌轉載

昨年 第一次五個年의 成績에 對하야 蘇聯邦의 最高指導者인 스타린은 [illegible]

白色테로의 蠢動 斷乎剿滅할 方針 國民에 對한 生活不安을 一掃 松本警保局長言明

【東京電】 最近 頻發하는 白色테로의 橫行에 對하야 內務省警保局에서는 [illegible]

蘇聯通商關係 將來益益有望 우르과이와 外交特派員談

【오뎃사發特電】 駐蘇 우르과이外交特派員 [illegible]

"國防計劃實行 九個國會議召集" ◇國府에 提出할 外交建議案◇ 二日立法院에서 審議

【上海中特派員三十日發】 國民政府內의 排日主力인 立法院은 昨日會議에서 [illegible]

外相과 英米大使와의 會見內容發表中止 今後情勢가 發展치 아는 限 當分推移를 靜觀할터

【東京電話】 廣田外相은 英、米 [illegible]

汪氏、王正廷氏에 外長就任勸誘 日本聲明以來處地困難으로 對日方針又復强硬?

【南京上海三十日發】 [illegible]

倫敦上海空路 不遠開設

【聯合倫敦三十日發】 [illegible]

米艦隊、大西洋에

【샌디에고加州發聯合】 太平洋岸에 있는 米國主力艦隊는 [illegible]

政民政策協定을 滿場一致로 承認 卅日의 政友議會總會에서 同時에 聲明書를 發表

【電通東京電話】 政民兩黨의 政策協定에 關한 政友會의 議員總會는 三十日午後三時부터 本部에서 開催하고 [illegible]

一、政策協定事項

가、米穀對策

나、思想對策 及 敎育制度改革

二、政策協定의 方法

聲明書

[illegible]

對內閣的이나 內容은 穩當 民政의 政友聲明評

【電通東京電話】 [illegible]

倒閣運動에 利用? 問題는 政黨에 對한 國民的信賴 貴族院의 兩黨協定評

【電通東京電話】 [illegible]

印度孟買罷業 自然消滅? 首腦者檢擧로

【孟買三十日發】 [illegible]

米穀統制法 實施期遲延 結局五月中旬頃?

【電通東京電話】 第六十五議會에 [illegible]

換地利議會 今月末限解消 新憲法不遠公布

【聯合伯林二十九日發】 [illegible]

文相後任問題로 政府와 政友對立

【聯合東京電話】 [illegible]

蘭印貿易의 二法案實施 日本에 樂觀不許

【電通東京電話】 [illegible]

樞府審查委員會

【電通東京電話】 [illegible]

消息

[illegible]

夕刊後市況

[illegible]

메이데이 前日正午 鐵道工場에 檄文

廿五、六歲의 青年二名逮捕

市內各署의 警戒森嚴

【평양】 함흥(咸興)과 원주(原州) 평양(平壤)에서 「메이데이」를 기회한 격문사건이 있고 ...

道財務部는 卅日로 廢止

지방관제(地方官制)가 개정되어 ...

本社後援의 第四回 全朝鮮籠球選手權

中央基青과 體育會 共同主催

廿五、六兩日間開催

◇大會綱領

◇大會規定

◇附則

最終의 會議

명절「어린이날」 準備大體完了

七색 빼라와 아름다운 포스타 海內外에 盛況豫期

銀行襲擊犯 青岡縣에서 逮捕

강탈한 소총 한자루와 六萬六千圓도 押收

平壤赤色勞組 最高六年을言渡

未決通算은全部에八百五十日

最低判決이二年半

辣龍窟探勝 龍登線으로便利

江波에 싸여 끊일 듯 이어지는 방치소리

春川農校生四十餘名 金剛山中에 籠城

楊口方面에서七八名을檢擧

血書의要求條件提出코

【춘천지국전화】 춘천 공립농업학교(春川公立農業學校) 四학년생 四十六명은 ...

極東올림픽行 明大選手 全部 除名을決定

選手보내고뒤싸움益險惡!

【電通東京電話】 明大體育會緊急委員會는 三十日 午後四時부터 校內 地下食堂에서 開會、全委員 二十四名參集、昨夜歸東한 體育會代表者尾崎幹事의 報告에 基하야 愼重協議한 結果 同 五時半에 이르러 既定方針대로 在學選手를 全部除名하기로 決定하고 聲明書를 發表하엿다。明大在學의 極東大會代表選手는 다음과 갓다。

▲吉住猛(四百米、五種競技)
▲合田思純(一萬米)
▲服部眞郎(走高飛、走幅飛)
▲河津憲太郎(背泳)
▲石原田恩(中距離)

明大競技部도 陸聯脫退?

【電通東京電話】 明大體育會는 同會의 不參加勸告를 무시하고 同會 所屬極東代表選手에 對하야 去二十八日夜 先輩代表를緊急西下시킨바 神戶로부터 平洋丸에 乘船同行한 先輩의 不參加勸告의 說得도 選手들의勝手한 決意를 굽히지못하고 또이번 代表와함께 木下體長의强硬한 不參加意思를傳한 尾崎幹事의 努力도水泡에 歸하엿다는 報告를接하엿으므로 三十日 午後三時부터 學內地下室食堂에서 緊急委員會를 召集하고協議하기로 되엿는데 去二十八日同委員會에서 右選手가 最後의不參加勸告를 容認하지않을 境遇에는 어디까지든지 既定方針에 基하야 全除名하기로 全會一致 決定하엿다。이에이르러 마침내 除名處分은 免치못하리니와 明大陸上競技部는 早大競走部와 全히同一한 立場에있어 二十九日夜 決行한早大의 脫退에뒤이어 學生陸上聯盟으로부터 脫退하기에 이를것이라고본다。

올림픽船門入港 上陸은禁止해

【聯合門司電話】 不參加問題의 波瀾을 품은채로 廿九日正午 神戶를 出帆한 極東大會選手 平沼團長 一行 百六十餘名을 태운 올림픽船 平洋丸은 三十日午前八時 門司稅關片岸에 다어 選手一行은 甲板에 나타낫는데 波瀾에 波瀾을 본 直後인만큼 緊張한 空氣에 가득찻다。水陸兩選手들엔 負傷者가 續出한데 鑑하야 또一層 注意하야正私服警官總動員으로 警戒하고 平洋丸出入者를 限定하는 等 警戒엄중 하고 또 門司下關에서 最後의 練習을 할터이던바 三十日午前 八時半에 이르러 東京本部及 山口縣特高課로부터 此際 自重하는 것이 最良策이라는 注意가잇어 急遽 A甲板 平沼團長室에서 緊急統制委員會를 開催、協議한 結果 門司及下關 關係 各隊의 好意에 對하야 未安한일이니까 選手들은 가장安全을 保證할 方法으로 結局此日 練習을 中止하고 陸上과의 連絡役員만 上陸하고 選手一同은 上陸하지 않기로 決定하엿다

船上의最初練習 陸上主將은齋選手

【平洋丸에서 聯合特派員廿九日門司發】 極東대회의 意氣에 가득찬選手一行을 태운 郵船平洋丸은 二十九日 神戶港岸壁으로부터 一路 마닐라를 向해出港하엿다。날은 흐리엇으나 波濤는平穩하야 練習에는 좋은컨디숀이므로 午後二時에는 氷上을비롯하야 各部은 보트甲板에서 一齊히 輕한練習을開始하고 野球는 最後로 午後四時練習을終了하엿다。한편으로는 陸上에는 神田顧問、山本副團長 中心으로 各補助員들과 三幹事의 役員室에모이어 協議한 結果 齋選手를 主將으로 決定하엿다。

野球蹴球만은練習

【聯合下關電話】 올림픽船 平洋丸의選手團 統制委員會는 三十日 門司着과同時에 選手의門司上陸練習中止를 發表하엿는데 選手의行動은 愛國的程度로 危險치않어 特別히警戒를하야 野球와蹴球選手五十名만은 上陸 練習케하기로 되엿다。選手는 同日正午頃에 上陸하야 長府町 그라운드에이르러 最後의 猛練習을 行하엿다。

山本會長도辭任

【電通東京電話】 明大陸上競技部는 學聯離脫의決意를 굳게하야 二十九日夜 同部長인 山本博士宅을 訪問하고 이의諒解를求한바 山本博士도 이에이르러는 不得已 競走部와함께 自身도 辭任 上 日本學生陸上競技聯合會長을 辭任할 決意를하엿다。

一路마닐라에

【電通門司三十日發】 門司에서 하로밤을 보낸 極東大會選手一行을 태운 平洋丸은 警察當局의 嚴戒裡에 無事히 平穩하게 三十日 午後六時頃拔錨、一路마닐라를 向하엿다

明帝野球延期

【電通東京電話】 三十日午後三時부터 神宮球場에서 開催豫定인 明帝野球리그는 降雨의 關係로 球場의컨디숀이 不良하야 明一日로 延期되엿다。따라서 一日부터 神宮球場에서 行할 早稻田大學聯盟의 野球는하로 늦어 二日부터 開始하기로되엿다

中學及俱樂部 籠球리그

籠協主催第四回

朝鮮籠球協會主催 第四回 京城中學學校及 俱樂部籠球聯盟戰은 朝鮮日報後援으로 五月九日부터 十五日까지 每日午後四時부터 (場所未定)行할터인데 資格은 同協會 會員에 限한다。同協會의 團體會員 年會費는五圓이다。

그리고 出戰申請은 五月七日午後七時까지요 스케쥴은 七日午後 八時에 行할터인데 申請과 抽籤場所는 鍾路一丁目 四六番地 同協會事務所라고 한다。

專門學校團은 俱樂部로 編入되고 兩部가 各各 八팀以上일 때에는 A組B組로 分하야 A의最下位와 B의最上位가 爭奪戰을하야 그勝者가 上級으로 오르고 敗者가 下級으로轉落하기로 되엿으며 兩級의分類는 同協會가 實力을充分히調査하야決定한다고한다

廣島土木疑獄 全部有罪決定

酒造會社爭奪

全朝鮮內二萬名의 癩病根絶計劃

다시 千六百名을 더 收容하도록 小鹿島癩療養所增築

金剛山莊明日開莊

井上의答辯은 되어가는대로

다음은大橋夫人訊問

東京메이데이 示威行進

不義의妻를 殺害코自首

商工運動會臨迫 마라손코스決定

대회날도한주일남엇다

大會部署其他決定

大會任員決定

會長 朴承稷
總務部 李東善 ...

今日

陽五月一日(火曜日)
陰(小)三月十八日(壬申)
日出前五、三九 日入後七、二二
月出前九、四五 月入後六、一三

【滿潮】
仁川 前六、一五 後六、二〇
釜山 前九、二〇 後九、五〇

結核 結核의夏期療法 높이는統一的療法
文研藥用胚芽錠

京城 金 金地金鑛分析賣買 杉山商會
高價買入 杉山商會

朝鮮劇場 (電光 二八一)
時代劇 呼天悲魂
悲劇 紅焰
正劇 戀愛安一曲

團成社

桃花劇場
裏街의英雄
情熱의입술

優美館
獵奇島
록키의저녁

形象의 性質과 그 表現
—「人間描寫」와「社會描寫」再考—
(四) 洪曉民

四

그러면「人間描寫」에對한問題는 벌서 그方法과 그이데올로기에서 反普로레타리아的 形而上學的觀念論에 빠지고잇는것을 알엇슬것이오「階級的描寫」에 對하야는 이것이 普로레타리아의 文學運動의 一部分이것은事實이나 그것은 藝術의 全體的 이오 根本的인 初期普로레타리아 藝術運動에 符合되는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벌서 過去의部類에 屬하는것이다.

가장 巧妙하게된理論은 林和의「形象性의問題」等에 나타난「階級的人間의描寫」이것이바 이것도 亦是普로레타리아藝術 本來가 가지고잇는 맑스主義的 根本命題는 아닌것이다.

普로레타리아藝術—文學—은 本來가 社會的인것은 勿論이다. 그러나 그것은 普로레타리아文學을 表現하는 全體的形象은 아니다. 一時的, 또는 固定的인 二元論에 잇어서 形象의表現이라고 할수밧게 업는것이다. 곳 이것은「文學」에 對한 機械的宗派主義」의 誤謬라고 아니할수업는것이다.

그러면「社會描寫」는 어느곳에 基調를두고 또한 어느곳에 基礎를 두고 잇는가...

必要를 反映하는데의 藝術의 要求가 存在하다. 그러나 現存하는것은 一定한 矛盾의 結果로서의 必要에 따라서 矛盾의 根據」으로서 存在하는것이다...

그러면 林和의「階級的人間의 描寫」는 이 하나의로써 固定해잇지 않는것과 또는 形象보다도 더한 描寫의 根本命題가 되는것이다.

새로운形式도 可能하게될 것도 必然的으로 그것게 되어야 할것을 우리는 이곳에서 發見할수잇다. 그다음 또한「고-ㄹ키」라는 社會學은 根據로한 藝術評論家는 또한 하다.

「描寫는 吾人의 共感을 喚起하기 위하여는 自然의 表現은 有機化를 가다리지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社會를 自然의 全體에 擴張하여 主觀的인 것이다.」

이와같이「고-ㄹ키」는 社會를 自然의 全體에까지 擴張한것이 이것이다...

劇評
劇硏第六回公演
人形의 집을 보고
【三】 羅雄

B…「그래 헬메-가 그렇게 決局 떠나는 말하는것이지」

C…「그러치 입센은 自己의 作品에서 그러한 事實을 볼수있으리라 함니다. 正直하고 忠實하다」

A…「또 그러한 偶然的 事件에 依하여 가지고 노라에게 다는 正當하다는 것을 思想家로서 입센이 描寫를 엿보게하며 또 그巧妙한 事件과 人物의 配置는 입센의 劇的構成의 能熟한 手腕을 깨닷게하네」

B…「거기에 입센을 近代劇의 先驅者로 稱頌하는 理由가 잇는가 보이 그러고 그事件이 오늘에 우리에게는 매우 陳腐한 것같으면서도 얼마나 바람에 答지않는가」

C…「劇的結構以來 中世紀以前까지의 夢幻的 戱曲에서보지 못하든 특殊한 價値 即明日的 現實的內容에 照應하는 思想的內容을 表現한...」

A…「劇硏으로서는 그러한 演劇보다 더 現實性잇는 演劇을 보여줄 조흔데」

B…「그래 이번公演的意義는 얼마간 나타낫지만 더욱 우리에게 가지는 演劇을 해줄수잇으면 하는」

C…「그良心을 더욱 徹底히 해달라는 것이지」

B…「맞엇네」

A…「그러구보니 우리가 合그머니 劇硏을 하는것잡이 全く가 らにあはないよ 하하하」

B…「罪하는사람은 따로잇나 하하하」

…「이번演出은 어떠케 생각하나」

B…「글세 表面으로보면 어디까지가 演出의 範圍인지 區別키 어렵든데……」

A…「구얼 結局 戱曲이 舞臺우에서 藝術的成果를 얻었다면 그것이 演出의 功績이라고 할테지」

C…「그러치 演出者는 戱曲의 世界를 藝術的으로 具象化시키는 데 俳優, 裝置, 照明等을 統一的으로 驅使하야 그戱曲에 結局의 表現을 주게하는 演劇的創造의 中心的存在며 全責任者일세」

C…「그러면 實際에잇어서는?」

C…「미저戱曲을 充分히理解하고 解釋한것. 勿論그러케하기에는 무엇보다도 戱曲의 이데-를 理解한 現實을 알어야할것이 지 그리하가지고 俳優의 演技의 技能 舞台機構其外 劇場的諸條件과 觀客의 要求를 考慮하야 그 觀衆에게 감은 感動을 주도록 藝術的으로 表現하는데 잇어 主導的原理로서 그 戱曲의 內容에 따라다가 力點을 두게 또는 劇全體의 諸部分을 어떠케 統一시킬가를 細密히 完全히 熟考하여 演出案을 作成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演劇을 進行시키게되므로 演出者의 經驗은 演劇에 큰힘이 된다는 것이지」

A…「그런意味에서 이번人形의집에는 演出의 힘이 많엇을걸세」

B…「먼저 舞臺의 流動하는 人物配置에 잇어 바라에 이쉬이 있을」

A…「참 그것은 좋아서 舞臺의 緊張이 없을때 演出者가 人形을 만들어 또 不自然한 人物을 만들어 놓앗다 더욱 따분이 만들어 놓앗을」

C…「單純한 人物이 더구나 커다란 動作이 없는데도 舞臺의 空虛를 느끼지 않게 아름답게 調和」

C…「이劇本의 力點이 거기잇네 나는 노라의 心理的 變化의 過程을 주는 動機를 셋으로 나누어 보는데 첫번은 第一幕에서 노라가 自己男便과 病든 아버지를 생각하고 慮偶의 름을 한데 對해서 크록스텟드가「法律은 動機를 묻지않습니다」란 말에서 부터 노라는 自己의 生活과 社會에 對해서 懷疑를 느끼기 시작한 것과 둘째로는 第二幕에서 노라가 愛情의 破滅을 두려워하야 헬머-에게 크록스텟드를 解職시키지말어달라고 하엿을때 헬머-는 女子의 말을 들어 한번 發表한 意見을 다시 取消했다는 소문이나면 男子의 事務에 있어 어떠케가 잘될가 自己의 社會的地位와 名譽를保全키爲한이라는것에 노라가 그런것을 헬머-는 걱정이 아니냐고 할때 헬머-는 하를 버리내며 自己의 固執을 세워 그여코 免職通知書를 부치는 것을보고 노라가 그래도 作爲한愛情의 破滅」

B…「그러나 演出은 조곰만 不注意했」

A…「내생각갗아서는 노라가 헬머-의집에서 나올때까지의 노라에게 心理的變化를 일으키는 衝動이 不分明하게 抑壓된것이 큰缺陷이라고 생각하네」

B…「그것이「人形의집」의 劇全體의 印象을매우 稀薄하게 만든 것같은데」

B…「그럴때 發展에 若干의 失手가 잇드군 노라가 헬머-의 書齋의 門을 잠그는데 乳母가드나드는 것갈은것은」

A…「그外에도 여러군데 잇엇는데 裝置에 關係된것은 대 乳母와가 갈아서는 헬머-와 노라 以外에 左手쪽으로 乳母와 幼兒의 居處하는房으로 通하는 門이 더잇엇드면」

C…「그래야할것갈으이만 公園의 舞臺的條件으로는 좀 어려웟을것은 범파 세다싶이하지않든가 그러구 門만 잇으면 벌은 넘지않게」

B…「何如間 演出者의 조곰만 不注意야」

B…「그럴때 發展에 若干의 失手가 잇드군...」

B…「그러면 더 效果的으로 되어 努力하엿세」

◇…安全率百퍼센트의飛行機◇

【샌프란시스코發聯合】 英國의 앤스미스氏에 依하야 또 新案飛行機의 設計가 發表되엇다. 이것은 鳥型飛行機의 新型式으로 集中重量을 百퍼센트로 계다가 重力은 普通飛行機와같이 時速百哩이라하나 實現되는時는 實用化되겟지마는 아직設計뿐이니 果然豫期한 效果로 實現될는지. 寫眞은 千分之一의 模型과 그 設計者

BOOK·REVIEW
普專學會論集
에對한讀後感
【一】…白南雲

이 論集은 經濟, 法律, 政治, 文學, 哲學等에 關한 多方面의 專門的 論文集이므로 單獨으로 모조리 論評하기는 不可能하엿인故로 그 중에 가장 興味잇게 읽은 數個의 論文에 限하야 若干의 所感을 쓰려한다.

高橋午氏의「中世에 於ける正義思想」은 法律理念史의 一斷面으로서 中世自然法論의 歷史的性格을 闡明하라는것이 氏의 意圖한 目的이라 한다. 그러하야 法은 純粹한 思惟의 產物이 아니고 現實的 社會의 生活過程에 依하야 制約된 社會的 歷史的 이데올로기-란 意味의 머리말에 依하야 그方法論的態度가 暗示되어잇고 스코라哲學의 創始者인「아우구스틴」과 그 完成者인「토마스·아퀴나스」의 自然法論에 局限하야 論述의 範圍가 制限되어잇으며 스코라哲學의「正義思想」과 그世界觀의 母胎인 封建的社會組織의 內面的關聯을 聞明한다는것이 氏의主觀的意圖이며 氏의方法論的態度의 骨子인듯하다.

함에 依하야 讀者로서의 期待는 適當치안아하엿다. 그러면 封建的이데올로기-特質을 規定하는데 이르러서는 氏의 論旨는 親權的인 規定하는데 이르러서 氏는 의것 中世紀 世界觀의 基礎인 生產關係를 大概로 正當하게 紹介해주는 것이 封建的 이데올로기-基本的特質로서 所與의 本質을 客觀的으로 規定하엿는데 이데올로기-도 또는 그에 照應하야 規定하는것이 可能할것이고 第二로 眞正한 團體主義는 共同社會가 아니면 眞正한 共同社會가 아니다.

鄭勳謨女史獨唱會

時日 五月四日(金)午後八時

場所 市內長谷川町公會堂

會員券 (白)貳圓 (靑)壹圓 (紅)五十錢(學生券)

入場券發賣所 大阪屋號書店 和信百貨店 朝日樂器店 山口樂器店 京城樂器店 平安商會 ヤマト樂器店

主催 東亞日報社學藝部

今日프로
라디오 JODK 火曜日

晝間部
▼午前十一時五分 氣象通報 料理法 日用品時勢
▼正午 時報 今日프로그람發表 京城府廳發表
▼午後零時五分 古談 慎鼎稙
▼零時四十分 뉴스 貴穀實數永
▼二時 常識講座
朝鮮相續制度에對하야(三) 尹元上

夜間部
▼六時 童話 梁在應
▼六時二十五分 라디오學校 어린이와노래(一) 鄭淳哲
▼七時 뉴스 天氣豫報
▼七時三十分 家庭講座 郊外遊覽과 點心(一) 宋今璇
▼八時 俗謠 (一)녹양(二)양사타령(三)쇠산打令(四)中里(五)방아打令(六)栗山道(七)新江南(八)漢江水打令(九)景福宮打令(十)朝鮮三八 柳開東 李正云
▼四時 뉴스 書籍紹介事項
▼九時 白牧丹 李素香 (一)春香歌 (二)沈淸歌
▼九時三十分(東) 뉴스 氣象通報 明日프로그람發表

第一放送
▲午前六時半(東)基礎英語講座▲午後零時五分(東)ラヂオ體操▲午後(十)▲七時(東)ラヂオ體操▲二時(東)家庭講座映畵に就て▲六時(東)大時廿分(東)コドモの新聞▲六時廿五分(大)英語講座▲七時半(東)謠曲▲八時(東)浪花節(十)(二)(四)漢詩▲八時半(東)浪花節▲九時(東)合唱▲九時(東)歌舞伎太夫

明日프로
▲午前十一時五分 氣象通報 料理法 日用品時勢▲正午時報 今日프로그람發表▲午後零時五分俗謠(全羅道)實彬花)▲零時四十分 뉴스▲二時常識講座 朝鮮相續制度에對하야(四)(尹元上)▲四時 뉴스 書籍紹介事項▲六時童謠(蓬萊小學校兒童)▲六時二十五分 라디오學校 어린이와노래(二)(鄭淳哲)▲七時뉴스 天氣豫報▲七時三十分 家庭講座 郊外遊覽과 點心(二)(宋今璇)▲八時(京)經濟講座▲八時二十分名唱大會(京城長谷川町公會堂으로부터中繼)▲九時三十分(東)時報뉴스 氣象通報 明日프로그람發表

長江에永古한詩人
朱湘과中國詩壇
【一】…丁來東

一

筆者는 約二年前에 東亞日報에서 遜하야 飛行機에서 仙化한 詩人徐志摩氏의 悲報를 傳하는 것과 同時에 中國詩壇에서의 그의 地位와 가치를 紹介한 일이 있다. 그때도 筆者는 다시 中國詩壇의 不幸을 또 한가지 말하지 아니 할수없는 悲痛을 느낀다. 徐氏는 不幸中에 한가지의 原因이 되어 亦是 殿冬으로 일찍 不幸事件이 엿다는 筆者는 至今 해서가 二年前에 同人誌「新月」에서 朱湘의 이름을 보고 또 詩歌를 해석했던...

朱湘은 淸華大學을 卒業하고 米國에 가서서 約二年間 修學을 한後에 歸國하야 安徽大學에서 敎鞭을 잡고 있었다. 그러나 詩人自身에게는 日常生活에 困苦하야 自殺을 하엿다...

二

朱湘은 不幸해서 傳說一과 혹은 이 詩人의 生活에 對한 그의 가장 큰 感想을...

三

그는「詩刊派」即徐志摩 聞一多 孫大雨 饒孟侃 劉夢葦 蹇先艾 陳夢家 方瑋德 諸氏中의 一人으로서 詩의形式을 뛰어나는 重하는 詩人이다. 中國詩壇에 自由詩가 誕生하면서 부터 詩의形式이나 詩의音律을 너무나 輕視하는傾向이 잇는中 詩刊派의 詩人들은 이런方面에 많은 努力을 하엿다...

形式主義者의 詭辯
—異氏의流行歌謠曲問題에 關聯하야具氏의論을駁함
【3】 金管

具氏는 筆者에 社會的으로 流行歌에 關心이 있는것은(?)現象이라고 하면서 商品的價値가 無하다면 그 레코-드會社가 積極的으로 後援할理가 없을것이 아니겟는가 하고 疑問이라는 지나친 것같다...

나는 여기서 具氏가 所謂形式主義云云한것의 具體的論文을 接하게될때까지 言及하기를 避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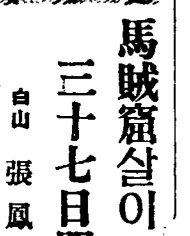
(中央日報四月六日—— 拙稿, 音樂的世界觀念으로서의音樂)

이에附隨하야 具氏의 流行歌謠曲問題에서 보는바 形式的 辯論은 上揭 引用文에 비추어서 보드래도 機械的 知識에 不過한것을 알것이다...

米國에亡命敎授의洪水
救濟委員會가就職斡旋

【紐育發】 相對性原理學者의 아인슈타인 博士를 비롯하야 ...米國에서 二千五百名의 救濟委員會의 活動으로 ...

馬賊窟살이 三十七日間
白山 張鳳朝



十三、旅行者의注意할몃가지

十四、馬賊의史的考察

1、馬賊의起源

2、馬賊의種類

3、

(完)

新刊紹介

▲別乾坤 五月號 開闢社發行 ...

▲가톨릭靑年 四月號 ...

▲調査月報 ...

無盡藏의天惠! 朝鮮地下資源 (四)

一、獎勵을受하는鑛山의資格

一、將來有望하다고 認定하는 金鑛山으로써 坑道掘鑿에 必要한 機械를 使用하는 特許를 가진 特許鑛山 [illegible] 鑛山을 除外함.

二、砂金鑛業에 對하야 「엔파이야」드렛지를 使用하고 砂金의 探鑛을 行하는 것.

二、獎勵金交付方法

獎勵金은 豫定의 探鑛作業을 了한 後에 交付하기로 하나 獎勵金의 交付를 受하려는 者에는 左記의 書類를 提出케 함

一、過去의 事業成績
二、將來의 事業計劃

右書類를 審査한 結果 適當하다고 認定하는 것에 對하야는 實査上 實施鑛山을 決定하고 該鑛山에 對하야는 左記에 依하야 事業의 監督을 行함

一、每月作業狀況을 報告케 함
二、年數回 實地臨檢作業의 指導監督을 行함
三、豫定의 作業完成後는 報告케 하야 實査함

右實査上 坑道掘進尺又는 試驗個所에 應하야 次項의 獎勵金을 交付함

三、獎勵金額

一、金鑛山에 對한 獎勵金額은 左와 如히 定함

水平坑道
幅五尺以上高六尺以上
延長 一尺마다 五圓

竪坑
幅四尺以上高八尺以上
深 一尺마다 十圓

二、砂金鑛區

面積으로써 許可한것에 對하야는 二千坪마다 延長으로써 許可한것에는 六十間마다 一個所의 比例로써 試錐探鑛을 行하는 것으로써 試錐數는 一鑛區에 對하야 平均百五十個所로 함

獎勵金額 試錐一個所에 對하야 五圓

四、實施豫定鑛山數

每年金鑛山은 一八乃至二十一鑛山 砂金鑛山은 約三十鑛區를 選定하고 十個年 三百鑛山을 限度로 [illegible]

六、激增하는 産金額

以上과 如히 朝鮮의 産金增加의 基礎를 確立하기 爲하야 가장 [illegible]

[illegible] 이제 大正十年以降 昭和九年까지의 産金獎勵政策實施後의 昭和六年以降의 朝鮮金産額을 比較하야 보는 것도 興味있는 일이다 即 次表와 如하다.

年別	産金額
大正十年	五,四二七
同十一年	五,三○三
同十二年	六,四六八
同十三年	七,五八○
同十四年	七,三一四
昭和元年	九,○六四
同二年	七,四三五
同三年	七,五○七
同四年	七,七[illegible]
同五年	八,[illegible]
同六年	一○,[illegible]
同七年	一二,[illegible]

即 産金獎勵施設實施前과 實施後를 比較하면 其産金額에서 [illegible] 昭和六年과 全 [illegible] 比較하면 其産額이 [illegible]

[illegible] 이 外 滿洲에 流入된 金은 二千餘萬圓에 達한다 하므로 이것을 加算하는 時는 驚嘆할만한 大增加率을 示하는 것이며 이 形勢로 推移된다면 産金獎勵當初의 目標인 産金額一億圓에 達하는 것도 數年을 넘지 않을 것이다.

今日 世界各國의 着眼은 國際情勢의 不安으로 가장 큰 것은 金問題이다 金의 爭奪戰은 尖銳化하야 其輸出禁止를 하는 것이 續出되는 狀態이다 各國이 모다 産金額의 增加에 腐心하고 있다 現在世界의 産金順位를 보면 過去十個年平均의 世界産金額은 年額八億圓으로써 其過半數를 내는 南阿一國이 第一位이다 約八千八百萬圓을 産出하는 加奈陀 北米合衆國이 第二位 第三位로 [illegible] 日本은 第七位로 되었다 다시 이 日本總産金額에서 朝鮮이 얼마만한 産額을 내고 [illegible]

金産額前年比較表

種別	昭和七年 數量(瓩)	昭和七年 價格(千圓)	昭和六年 數量(瓩)	昭和六年 價格(千圓)
金	八,五八四	一七,八○九	六,七五八	九,○○八
砂金	一,一二五	一,八三三	四八五	五七五
計	九,七○○	一九,六三三	七,二四三	九,五八三
金鑛	一○,四○一	九四四	三,八五八	五五三
次鑛	五,五一五	六三八	—	—
計	一五,九一六	一,五八三	三,八五八	五五三
總計	—	二一,二一五	—	一○,一三六

即 昭和七年度의 産金額을 昭和六年度産金額에 比較하는 時는

金은 (數量에對하야 [illegible]%) (價額에서 九七·七)
砂金은 (數量에서 [illegible]) (價額에서 二一七·○)
鑛、石 (數量에서 [illegible]) (價額에서 八六·○)

으로되고 보다 驚嘆할 增加率을 보일뿐 아니라 다시 滿洲에 流入된 것을 加算하면 [illegible] 增加이다 이같이 昭和七年度는 從來産金의 最高記錄 一千萬圓을 突破하여 實로 二千百二十萬圓으로 되었다 [illegible] 八年度에는 四,五千萬圓의 [illegible] 總額을 示하리라 한다

(註) 右에 掲한 數字는 모두 朝鮮總督府의 統計에 據함.

그리고 今日까지의 出願鑛區、及稼行鑛區의 增加狀況을 表記하면 次와 如하다.

最近의 金鑛出願

年別	出願總計數	內金鑛業出願件數
昭和三年	八六七	三一五
同四年	九三五	四四六
同五年	一,二[illegible]九	七三三
昭和六年	一,八○五	一,三七三
同七年	[illegible]	二,六[illegible]九
同八年	三,○八一	二,九四一

金鑛區

年別	年末現在總鑛區	內金鑛區
昭和三年	二,二五一	[illegible]
同四年	二,一七三	七四八
同五年	二,二六二	八二五
同六年	二,三三九	九九三
同七年	二,七一九	一,三二二

金銀稼行鑛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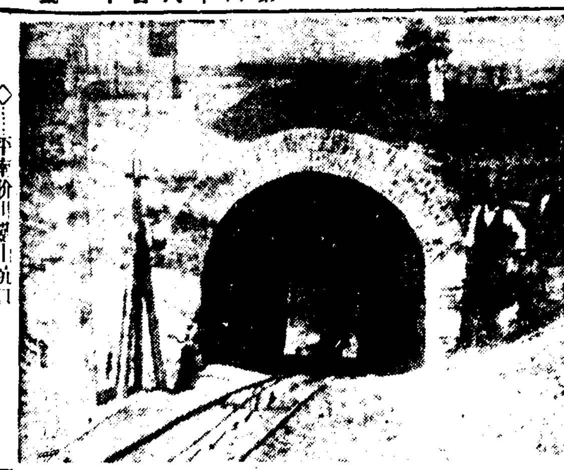
年別	總稼行鑛區	內金稼行鑛區
昭和三年	三六五	二一一
同四年	三八五	二二一
同五年	四五六	二八三
同六年	四九七	三三九
同七年	八四七	六三六

即出願鑛區·稼行鑛區가 모다 昭和六年度부터 急激한 增加를 示하야 七年度에는 다시 一大躍進을 遂하고 있는 盛觀이다

以上은 古하고 이 比例는 逐年飛躍的增加를 示하는 것이 確信된다.

그리고 다시 朝鮮의 昭和六年과 昭和七年의 金産額을 具體的으로 比較하야 보면 다음과 같다.

産業



◇…平南价川鑛山坑口

七面鳥의 飼養 (下)

養鷄보다 有利하다

厭源 涉

禽舍

[illegible] 七面鳥를 收容하는 禽舍는 [illegible] 大體로 [illegible] 그것과 같은것이 좋으나 [illegible]

孵卵

(가) 七面鳥自身에게 抱卵시키는것
(나) 鷄에게 抱卵시키는것
(다) 孵卵器에 依하야 孵化시키는것

以上의 세가지方法가운데 七面鳥自身이 抱卵하는것을 [illegible]

抱卵日數 二十八日
一次에 抱卵個數 十五個以內

育雛의方法 人工에依함

[illegible]

肉體

[illegible]

≡黃銅色七面鳥≡

[illegible]

法律顧問

【問】一、未成年者인 養子甲의 實父가 死亡하였는데 [illegible]

【答】[illegible]

在留同胞의 苦痛이든 奉天水利稅廢止

【新京】滿東北 [illegible] 一般農民同胞의 苦痛이든 奉天省 水利稅는 四月二十七日 아래와같이 裁可公布케 되었다 한다.

徵收水利章程廢止의件

大同元年敎會 第三條 臨時的으로 從前의 法令을 採用한다는 件에 依하야 採用되었든 徵收水利章程은 此를 廢止함

附則

本令은 公布日부터 施行함

本令施行의際 滯納된 水利稅及其罰款의 徵收에 關한 必要한 規定은 財政部大臣이 此를 定함

[illegible]

特輯
朝鮮新聞發達史 ……霞汀
新聞社의組織과活動 ……高永翰
朝鮮雜誌發達史 ……李鍾洙
●新聞社說에對하야 ……李如星
●新聞小說에對하야 ……李無影
●新聞漫畵에對하야 ……崔永秀
●저―날리즘과文學 ……李健榮
●저날리즘과誹議罪 ……梁斗植
저날리즘批判
新聞人과新聞道 ……吳基永
저날리즘의歸趨 ……玄一信

世界新聞史
新聞大學及大學新聞論 ……梁在廈
統制新聞을論함 ……友漁

世界通信網組織 ……洪陽山人
世界主要新聞總覽 (附 新聞紙展)

手帖속의로만스 ……崔容煥
特派記者의生活雜記 ……金正實
記者生活의追憶 ……申彦俊
新聞經濟欄보는法 ……朱耀翰
政治面記事解說 ……申鉉俊
天才記者『뿌리스벤』 ……XYZ
支局記者의活動相 ……梁在洙 支局記者

韓末前後日本各記者活躍記
雜誌記者座談會

朝鮮農地令檢討 ……金正實
中國의國權回收運動 ……鞠淳葉
蔣介石의파시즘運動 ……申彦俊
蘇聯青年運動의現狀 ……洪曉民
現中國學生愛國運動 ……丁春水
經濟學講座 ……盧東奎
世界動靜
新興比島의政治的將來 ……李如星
華盛頓會議의回顧와展望 ……洪翼範
問題의一九三五年、六年앞두고●●●●

五月號
新東亞

附錄 新聞用語辭典

定價卅錢
發行所 京城光化門通一三九 新東亞社
振替京城一四五○○ 電話(光)一九○○

早春人情曲 ……宋順鎰
人이 ……님 셈
亐 ……金起林
告別 ……金東鳴
都市 ……柳致環
二吟 ……李庸洙
詩壇

五月의追憶
懸賞當選作 ……三篇

隨筆
봄비 ……李永義
逍遙 ……

短篇小說 하누님의힘 ……權明洙
無名生 ……
漂波錄
蔡萬植 ……生人의 ……
文藝

地方論壇

永興産組總會開催되고

永興 一記者

【영흥】 기보=거(去)한 사이에 수십패로 十二만 수천원의 부채를 지머지고 재산이 ...되어 좀체 갱생해오든사이까지 기이 주저하게된 영흥산업조합(永興産組)의 정기총회는 전번의 방침이 고안중에있든 부흥책과 내부충실이 처치관계로 부기연기중이엿든바 지나 二十七일 전기연기중의 총회를 개최하엿다.

전기와같은 내용관계로 방침위기에 즉면한 동조합의 부흥총회이엿든만큼 조합원의 이목이 분분하엿다.

그중에도 크게문제되엿든 것은 三만 九천 八백여원의 결손처분문제와 기타의 회수 하방없는 대부금 급 배당금(配當金)二만원이 미정되엿는데 그중 전자만을 위시인수처분은 사기가 모하엿다 그때에문제되엿든것은 자년도에 결손한 사무소신축비 四천九백원과 이사 사택신축비 一천五백원이 문제되는데 전기문제로 당국자에게 추궁하게 되엿든바 조합이 부채에몰려 사이의 중지는 훨씬 그의 지불조차 못하는형편에 그와같은 거대한 지출을 건축에 七천수백원을 사용 치못하는 당국자의 심사는 이해할수가없으며 따라서 그러한 자재를 사회적으로 할수없다는 것이엿다 이에 다음으로 이사(理事)개선이엿고 그러고 당연 히 조합원의 부담이 되고 사퇴를 제출하게 되엿으니 조합원의 이목이 집중되엿다가 결국 개선을 결행하엿다고 한다.

昌成學院을 維持하자

金二浦 一記者

金二浦에 昌成學院은 一九一六年에 長老敎會의 創立으로 當時는 實質로 唯一한 우리의 敎育機關이 잇엇다 同學院은 十八年間에 一年以上 修業者가 千餘名에 이나 되고 卒業生이 現在百餘名에 達하는데 그 群中에는 大學을 마치고 社會에서 活動하는 人物도 잇고 其他各種實業方面에서 相當히 活躍하고 잇는것을 우리는 듯는 同時에 同學院의 貢獻이 우리 民族的에 多大하엿다는것을 經營當局者에게 感謝를 하는 바이다.

過去에 잇어서 前記와 같이 育英事業에 貢獻이 많은 同學院은 現在에 와서 經營者를 잃고 爽地에 빠지게 되엿다고 하니 이얼마나 섭섭한 事實이냐?

現在學生 百十數名의 兒童들은 同學院이 아니면 배울곳이 全혀 없는것이다 普通學校에는 年齡超過 또는 敎室不足으로 入學할수 없는 現像이고 또는 夜學조차 없다 이와같이 우리의 子女敎育上 重且大한 役割을 하고 잇는 同學院을 經營하든 金二浦長老敎會 諸職員에서는 一切의 責任을 放棄하고 現在敎師 某氏에게 맡기엿다고 하니 이얼마나 寒心한 일이냐? 勿論 貧弱한 敎人들이 그러한 事業을 經營하려고 하면 쉬운일은 아니다.

그러나 두주먹만 가진 敎師에게 맡기는것보다는 아직도 安全한것이 敎會가 아닌가! 同學院創立時를 回顧하기대 現在敎會에 比하야 財政上으로나 敎人數로나 五分之一도 못되엇든것이다 그러한때에도 不拘하고 現在以上에 好成績을내이엇든 것은 決코 그때의 社會環境에 基因한것이 아니고 經營者의 熱誠에잇엇다고 보는것이 當然以上의 當然한것이다.

此際에 同 經營者側은 勿論 而民有志 諸氏는 한번 깊이 생각하고 昌成學院의 將來를 爲하야 어떤 犧牲과 努力이 잇지않어서는 아니될것이다.

同學院에 在籍生의 多數는 貧窮으로 因하야 入學時期를 지난 兒童들이다 이같이 不幸에 빠진 우리子女를 敎育하는點에서 敎育機關보다 必要하다고 생각하다 우리 將來에 曙光을 줄자는 今年의 子女中에서만 당하는 것이아니다 普通사람이 맛보지못하는 艱境의 艱境을 突破하고 偉大한 人物은 貧窮에서 낫은사람이 萬人中에 내여놓는 ... 將來의 曙光을 비치어주리라고 期待되는것이 前者보다 큰것이다.

長老敎人과 有志諸氏여 우리는 어려운일을 하기困難하다고 내여버리고 面하여만은 법서 없어질것이다 우리의 處地에서 어느것이나 쉬운일이잇으리요. 더욱이 敎育事業은 더욱어려운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一步라도 前進할것이며 後退할 步은 絶對禁物이다. 잇는힘을 다하여 經營方針을 講究하며 一般社會와도 相議하여 할것이라고 생각한다.

南朝鮮의 農家食糧 滿洲粟으로 質的變化

보리보다는 가격이 헐하다하야 四月까지 輸入六百萬斤

【부산】 五六년전에는 조선농가에서만주조(滿洲粟)를 사서먹게되어 그 수용량이 한없이 많어 만주속 수입량이 비상히 많기를 가지고 시장커마다 수요처마다 만주속이 산멸이같이 쌓여잇는데 만주속 수입의 판세인상으로 인하야 만주속의 가격이 보리쌀보다 비싸게되어 자기들이 한쌔지든 패미는 모두 팔어버리고 값이 헐한 만주속을 먹게되는 남조선 一반농가에서는 또 그보다 더 헐한 일본산의 보리쌀을 먹게되어 한동안 만주속의 수요는 격감되어 미곡시장에서 그림자를 감추더니 보리쌀값이 올으고 쌀값이 올으고 하야 농민들은 재차로 만주속을 찾게된다고 한다. 만주속이 얼마나 많이 수입되는 사실은 부산세관을 통과한 수입수량을 자세히 알수잇는데 四월까지중에 五백四十만근이라는 만주속이 부산항구에 수입되어 조선一대에 농촌으로 부산되엇다 한다.

昭和六年	一八、三三九	同
昭和七年	一八、三〇〇	同
昭和八年	五二、二九七	同
昭和九年	六八、二六五	

(四月二十八日現在)

만주속의 가격은 패미一석에 五원五十전으로 쌀보다는 매석에 八원 五十전이 헐하게되어 一반농가 특히 조선농촌은 만주속만 찾게되어 부산항구에 주문이 쇄도하야 수요를 응할수없는 지경이라고 하니 만주속의 연수입통계를 보면 소화四년이래의 수자는 다음과 같다.

昭和四年	七〇、五二八	(單位百斤)
昭和五年	六一、七二一	同

만주속의 수입이 이와같이 많은데 식량의 수입만큼 그 자신의 피폐한정도를 여실하게 증명한다고 한다.

祝福의 어린이날 各地에서準備에奔忙

◇寧邊의準備 【영변】=조선의 새싹인 「어린이」들을 장의미잇게 맞이하기위하야 지난 二十七일 하오一시에 영변의 오는 오월五일은 전조선적으로 一층 지천하겠다는 생각으로 거행하는 「어린이날」이라 이날을 북 영변(寧邊)에서도 이날을 가 각소년단체와 유지제씨가 집합하야 유재청(柳在淸)씨사회로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인원선거와 토의사항이 잇엇다 한다.

▲委員長金學信▲總務兼會計柳在淸▲經費籌出部金學信、柳在淸、吉允寬、張內日、張學乘、廉甫南、金珍乾、張基妍、廣甫、▲交涉部=車南斗、柳在淸、▲準備部=廣甫寬、張學乘、吉允寬、▲宣傳部=廣甫寬

一、準備場所=朝鮮日報支局內 一、大會=寧邊幼稚園內 一、父兄母姉會開催件 一、記念進行件 一、少年少女慰安件 一、童話開催件

◇北鎭의準備 운산군 북진 북진소년회(北鎭少年會)에서는 어린이날을압두고 여러가지로 성대히하고저 계획중이데 그 준비원과 결의사항은 아래와같다 한다.

◇準備任員 (가)交涉任員=黃成模、尹德向、朴昌賢、宋濟龍 (나)宣傳金募集任員=李重爾、黃明玉、崔處吉、鄭文均、金鑾善、鄭信益外二氏 (다)어린이大會準備任員=郭龍成外四人 (라)父兄母姉會準備任員=金龍浩、金永旼、張錫熙外二人

◇決議事項=(一)어린이날記念式擧行列擧行의件(二)어린이父兄母姉大會開催의件(三)同情金募集의件(四)會員募集의件 任員文明玉外三人(五)準備委員選擧의件其他

◇安岳의準備 안악(安岳)에서는 해마다 크게 어린이날을지키어오든바 안악읍내와 그부근은 물론이고 평정리(平井里)소년척후단(少年斥候團)과 동창리(東倉里)에서도 각각거행하게되엇다 한다.

◇興南의準備 함남 흥남(興南)에서도 어린이날을 준비코 이광시(李光錫)씨등의 발동으로 여러가지로 준비중 이라고한다.

◇高興의準備 전남 고흥군 도양면(道陽面) 녹동(鹿洞) 농우회(農友會)에서도 어린이날을 준비하기에 분망하다고 한다.

◇甲山의準備 갑산(甲山)에서도 이시철(李時喆)씨를 비롯하야 각 준비를 다하고 잇다한다.

◇楚山의準備 평북 초산(楚山)에서도 기쁜 어린이의 명절 어린이날을 성대히 맞이하고 ...

◇平山의準備 황해도 평산군 안정면 양촌리(陽村里)에서도 꼿어린이들이 모이어 어린이 자신들이 이새명절 어린이날을맞이하기에 준비를 다하고 잇다고 한다.

◇滿洲各地準備 만주 (滿洲)의 각처=철령(鐵嶺)에서는 조선인청년회에서 개원(開原)에도 조선인청년회에서 안동현(安東縣)에서는 그곳 조선인청년회 소년회 대련(大連)과 각지에서 모두 준비중이라고한다.

◇明川의準備 명천(明川)에잇는 보광유치원(普光幼稚園)에서도 이날을 기념코저 모든 준비를 다하고 잇다한다.

高興公園鳳凰山의春景

進永竹細工講習光景

靑春寡婦로 十年길은아들

就業十日만에轢死

◇겨우 돈버리하게 길러놓자 늬잃은寡婦는會社에呼哭

【강동】 평남강동군(江東郡)소야전(小野田)세멘트회사 사무실에 다니든 二十五인 사기아들이죽엇다고 울며야단하는 부인이잇엇다 그는 강동군 고천(高泉)면 동부(東部)에사는 박전화(朴田化)(一)로 청년과부로 어린아들을 데리고 쓰라린 고생을 하며 가난하게 살아오든바 그 남편은 김동민(金東敏)으로 어린자식을 두고 별세하엿든 것이다 그는 여러가지 고생을 하며 어린아들을 키우고 일녀 그 아들이 세멘트회사에서 입부채용이 되어 십여일간 매일 전기회사에서 일하든중 작업중에 추락하여 그만 즉사하고 말엇는데 이 슬픈소식을 듣고 회사에 달려와 울음을 그칠줄 모르며 여러가지 하소연을 하엿는데 회사측에서는 一백九十二원을 위자료로 주엇다고 한다.

黃州早起會 定期總會開催

【황주】 황주 조기회(黃州早起會)에서는 제一三회 정기총회를 월산(月山)에서 개최하엿든바 조기회에서는 이로부터 육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로 결의하고 一반에게 유리함을 알리게 하는방침으로 ...

新興協會 羅津에서創總

【나진】 가보=나진의 여러 단체 신흥협회(新興協會)는 지난 二十一일 창립총회를 개최하려 하엿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유회되엇고 다시 지난 二十七일 오후八시 강용방(姜用方) 사무실에서 개최하엿는데 다음과 같이 임원을 선거하엿다 한다.

▲會長尹東六▲總務李得松▲會計金德三▲顧問姜齊植 金瓚植

▲評議員(?)... 위원은 다음과같이 一임하엿다 한다.

▲綱領 一、우리는 民衆事業을主로 民衆의 ...

第十回全朝鮮蹴球大會

日時 五月十、十一、十二의三日間

場所 平壤、箕林里公設運動場

▲參加 靑年團、中學團、小學團、實業團

▲申請 五月八日午後六時까지下記場所로 (一、平壤水玉里關西體育會館(東亞日報社平壤支局)(二、平壤府南門通大小運動具店)

主催 關西體育會　後援 本社平壤支局

大邱婦人見學團募集

日時 五月十一日正午부터專賣局、林業試驗場、種苗場、裁判所、道立醫院

▲團員券販賣所 (本社大邱支局內 ... 各書店 ... 東京婦人館)

主催 東亞日報大邱支局

滿洲視察團募集

◇日時 五月五日부터十日間

◇會費 七十九圓 (車費、宿泊料、觀覽料)

◇申請 四月二十九日까지 本報滿洲支局으로

◇視察地 大連、旅順、奉天、撫順、新京、哈爾濱、吉林、淸津、朱乙溫泉、京城

主催 東亞日報滿洲支局

後援 鳥致院驛

營業을禁止 娼妓들을解放

창기들이 다라나것이 동기 營業主는警察拘禁

【통영】 통영유곽 (統營遊廓)에서는 요전 명월관유곽에서는 그동안 창기 一명이 도주한사실이 잇은 후 당시 경찰은 명월관 주인을 고발한사실이 잇은 후 一채로 시정을 양수하야 조사한 결과 의외의 사실이 발각되어 경찰은 즉시 영업을 취소시키는 一방 창기 十一명사금 전부를 각각 본적지로 보내엇다고 한다.

消息

◎山田氏(水原郡財務主任)京城稅務局으로 榮轉人事次 本報水原支局來訪

長湍郡下에는 一面一校完成

津東公普校開校로

【장단】 경기도장단군(長湍郡) 진동공보교(津東公普校)는 지난 十월二十일경에 인가를 엇엇고 후로 기성회에서는 학교설치를 위하야 노력한 결과 하교설비에 노력하엿든 장단군 진동면 하포리(下浦里)로 이전되고 六천七백여원으로 교사를 신축하고 소야미(小野)등 여러 교원이 부임되어 서 공사는 준공되어 지난 四월一일 개학하엿든 바 一면 일교가 실현되엇다 한다.

존(?) 이 학교에 입학한 아동은 예정과같이 지나 一학년이 백三十여명에 달하엿으나 학교 수용력부족으로 八十명밖에 입학 치못하엿다는바 입학못한 아동이 장단군내에 ...

莞島體育會 新運動機設置

【완도】 전남 완도에서는 완도체육회에서 ... 하야 새로 운동기구를 설치하엿다 ...

▲執行委員 ... ▲總務部長 李海南 ▲庶務、洪鎭、崔鎭▲文化部 金炳俊▲社會部 ... ▲財政部 ...

河東酒造組合 解散總會開催

【하동】 하동 지난 四월二十七일 하동주조조합(河東酒造組合)은 해산하기로 결정되어 지난 四월二十八일 하동에서 해산총회를 개최하엿는데 ... 一、昭和八年事業年度報告承認의件 一、臨時總會...件 一、組合解散의件 一、淸算人選定의件

무지개 (202)

張赫宙 作 李象範 畫

부인물 二

「오랫동안 나 남철이요.」

이시아는 무엇을 생각하고 간 자 하더니

「혜영이가 나와서 … 남철이가 한번인가 자세히 알고싶어서 왓지만」

「지금 어데잇는가」

남철이는 어째서 그렇게 속이 울렁거리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이숙희집에 와서잇데. 가서만나게.」

「글세……」

남철이는 혜영이 그리워서 잡고잇엇다 그가 차라리 자기에게 소식이나 들어볼가 하고 대구까지 가보려는 것이엇다 그는 부산서 고향에 향하지않고 차를 타기로 한것이엇다

「자 어떻게 서방이 사랑하는가요.」

「그리우리 대구서 만나본가.」

여전에 나가서 속이나 한잔하세.」

「그래 남철이가 참 피로하엿는가 하엿다.」

「아마 이사람이 혜영이를 만난다구 그러케 근심하는것 같은가.」

이시아는 걱정스러웟다.

「그럼 자 ……가만잇게」

이시아는 남철이 묵어가는데 수박 들을 하야 안고 들어왓다.

「이게 여기 명물(名物)이래. 자, 좀어먹게. 좀 나거던 혜영이 또 가져다주게.」

이시아는 칼로 쪼이어서 남철이를 주며 떠낫다.

부산행차가 그리는가온데 여에 들어와서 다엇다.

남철이가 탄 열차가 잇다라 온 즉이나

「나, 남철이。잠기게 우리는 오늘 밤엔 마산이다. 잘되어야 될터인데.」

「반갑에 부들리지나 맙게.」

「에이 이사람。그럼리가 잇는가. 적어두 박이시아 아닌가.」

남철이는 점점 멀리 떠러지는 박이시아를 내다보고잇다가 차가 사라질때 까지 앉엇다. 그는 박이시아의 웃음을 눈에 그리어 보앗다. 박이시아의 머리에는 이미 행복스런 얼굴을 ... 그러나 그는 어디가? 남철이에게 치기는 어째 거북하서 안해를 추처럼 꿈을 꾸고잇엇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시 한결 아름다운 꿈을 가진 향락파 박이시아는 지금 가진 한결 한발 그리워하는 이엇다. 기쁨, 노래, 웃음, 그러나 참의 죽는가도 이미 했다. 그는 차가 떠날때 도 ... 하고 바이었다. 그러나 그 잇지나가면 그는 다시 한결

「하여튼 한날후이면 남철을 해 사하려니 그때 만나세.」

이시아는 차가 삼량진에 다을때 남철을 독촉해서 나렷다.

「자, 잘가게。혜영이허구 결혼하게.」

이시아가 남철이 가방을 차창 밖에와서 작나하듯 웃엇다.

남철이는 이시아가 기생들속에 끼어 저리로 가버릴때 그는 차에 서 나렷다. 그는 혜영이에게 전보를 치라고 하엿다. 그러나 혜영이에게 치기는 어째 거북해서 안숙희에게 치기로 하엿다.

그는 전보를 치고 돌아와서 자리에 앉어 비로소 그의 가슴은 안정이 되는것같엇다. 그의 앞날은 이로서 일단락이 되는것 같엇다.

차는 좀처럼 떠나지 아니하니 하엿다. 조금 잇으니 부산으로 가는 특급이 十분연착이므로 늦게 떠나다고 역부가 외치엇다.

남철이는 혜영이에게 만나 볼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게 편지보다 더욱 무엇이 그에게 잇어주엇다면 그는 무엇이라도 뚫고 나갈것같이 생각하는 것이엇다. 그의 앞은 갑자기 밝어지엇다.

그는 방안의 요따같은 온갖을 비시너것을 몰아서 지치며 다행하게 생각하엿다.

그가 앞날의 여러가지 생각에 잠겨 잇을때 이시아가 또 나타낫다.

「남철이 심심하지 나려오게.」

남철이는 그자신 혜영이를 만나볼 생각을 하고잇엇다.

남철이는 아직도 그의 눈에 선연히 나타내주잇는 그때의 무지개를 생각하엿다. 박이시아가 지금 쫓기고잇는것은 무지개다리속에서이다. 무지개가 사라진다면 그는 구렁이에 떠러질것이 아니냐?

(무지개다。)

나 그것이 사라진다면?

그가 그의 삶과 사업을 끝까지 진행시키려면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잡고 잇는 환상 곧 이런것들을 없이하여야만 되겟다고 다시 생각하엿다.

그러는 가운대도 차는 점점 대구를 가까히 달리고잇엇다.(끝)

第九回 慶南記者同盟定期大會

◇時日 五月五、六兩日間

◇場所 東萊邑內一誠館

◇申請期 五月二日까지

◇通信所 東亞日報東萊支局

人畜無害 世界到處 效力無敵인 虫取藥

イマヅ蠅取粉

一家에 一罐은 꼭 必要!

▲파리는 勿論 아모런 虫이라도 대번에 全滅

家庭衛生傳染病豫防키爲하야

●衛生害虫用 イマヅ蠅取粉을

農作物の害虫驅除劑 ▲イマヅ殺虫劑 殺虫、除蟲、防疫

家庭防臭劑 ▲イマヅ芳香油 芳香이좋고 臭氣를 없애고 구데기와 빈대는 即時死

大阪市大正區 今津化學研究所

天息助膜肺에 イマヅミン

喘息・咳・百日咳 ◆適應症 肺・肋膜・氣管支 肺結核・胃腸病

無料相談

참말 良藥은 效果로 사람을끈다

病原菌及其毒素를除去하고 身熱、담、기침 食汗、便秘、 ... 하고 ...

▲副作用없다 ▲特效及注射 無...

十日分 二圓四十錢 三十日分 六圓五十錢 五十日分 十圓

신입아동의 통학에는 데리고 가야하나

귀한 자녀 이지마는 도리어 폐해가 많다

「혼자 학교에가기 싫여」 어머니! 「어머니 혼자가 그리 멀지도 않은데 왜 같이 가지고 해」 「그래도시려 나는 어머니하고 가치가야 좋아」……

이렇게 봄에 입학식을 마친 수동이는 처음으로학교에드러가게되면 날마다 어머니하고 가치학교에가자고 졸라대는것이엇습니다. 그러나 가치가는것도 하로이틀[illegible]

이지날마다 갈이갈수는없는일이엇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하로는 수동에게 혼자서학교에가라고 수동이하고 [illegible] 하엿습니다. 어린수동은 어머니와 가치가는것이 가장안전하고 또 든든하니까 그러는것이겟고 어머니께서는 걱정이만코 또수동에게 혼자서 제일하시수잇는 첫시험을주기위하야 그러시는것입니다. 그러면이 모자(母子)의경우는 어떠할것이오릿가요.

가정에서는 一년동의 어린아동 [illegible] 효과가 많[illegible] 하엿습니다. 학교에가시는것을 [illegible] 사상 [illegible] 아직 세상[illegible] [illegible] 공생(共同生活)과학습(學習) [illegible] 남의 [illegible] 의뢰심(依賴心)을 길러주는 [illegible] 독립자주(獨立自主)의 기상을 [illegible]

아동의

[illegible] 자립(自立)의 정신을 [illegible]

주는것은 [illegible]

그러나 그러케 [illegible] 학교에서 [illegible] 다니는 [illegible] 자동차가 [illegible] 주의시키시 [illegible] 도록하면 좋을줄압니다.

어떠튼 [illegible] 학교바래다주는것이 [illegible]

녹용을먹으시요

로서아에서

광장이선전

[illegible] 녹용(鹿茸)은 [illegible] 녹각(鹿角)이 [illegible] 혈각(血角)이 [illegible] (鹿茸) [illegible]

[illegible] 쇠모피양잠회(鄭邦皮毛羊蠶會) [illegible]

鄭勳謨女史獨唱會를압두고

少女時부터 樂才가 出衆

「크리스마스」의出演을보고 「루-쓰」夫人이 自願教導

女史의畧歷과藝術 (1)

오는 [illegible] 八시에 경성공회당에서 성대히 열릴 [illegible] 주최의 정훈모여사독창회(鄭勳謨女史獨唱會)는 [illegible] 의 열렬한 기대속에서 [illegible]

[illegible]

鄭女史의略歷

정훈모여사는 평양출생으로 [illegible]

[illegible]

博士室

問 一、대파산품이란 무엇? 四월달 五월달이란 무엇? 면사 면화의 값의 표준은? 二、미면인면이 고저란 무엇? 三、일미위체의 평가와 환산률? 四、횡빈생사의 값의 표준? (一讀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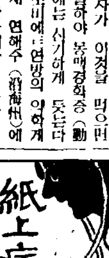
答 [illegible]

新映畵

『斷腸의悲歌』

파라마운트社作品

(성개) [illegible]



紙上病院

춘충

[illegible] (京城帝大岩井內科金東益博士)

新家庭 五月號 兒童特輯

發行所 京城光化門通 新東亞社 振替京城一四五〇〇番 ◇ 誌代二〇錢・送料二錢

誌上朝鮮普通學校
第一課(修身)뜻을세우라 栗谷先生
第二課(한글)한글이야기 金善琪
第三課(歷史)問答朝鮮史 李允宰
第四課(地理)朝鮮의地理 金道泰
第五課(理科)朝鮮産植物 李德鳳
第六課(作文)兒童傑作品 李殷相
第七課(算術)竹算이야기 白南奎
第八課(體操)少年武勇傳 李耳公

시골뜨기의첫번본서울

吳基永・李瑄根・金章煥・崔衡鍾・徐恒錫

指導者와資源 洪翼範
義務教育實施 玄相允
眞實한指導者 安俊植
指導精神樹立 金斗憲
指導理論統一 任鳳淳
兒童保健問題 李如星
圖書館의必要 高嶺松
兒童公園設置 朱翰榮
兒童文學小考 田榮澤

自作 手藝圖案集

病床雜記 金慈惠

胎教란어떤것인가

兒童服製法

特記事別 初產讀本 女醫 吉貞姬 指揮

(童謠)유치원동요 尹石重
長篇小說 소곰 姜敬愛
短篇 月給날 韓仁澤

連載漫畫 절절이의日記
上感花院
伊太利海
特別畵報

엄마茶話会
崔以權・任貞赫・崔明烈・朴承浩・趙榮淑・李俊淑・鄭燦英・林孝貞・朱成恩

思母曲 朴慶浩

어머니날
誌上어머니날開會辭
어머니(詩) 朱壽元
어머니(詩) 毛允淑
어머니날祝電朗讀
李容卨・趙碧岩・韓小濟・梁柱東・金斗憲・金璿俊・沈熏・崔鉉培・李安俊・鄭濂英・朴八陽・皮千得・李榮俊・朴慶浩・李軒求・李鍾洙

父母十恩画頌(옛그림새론맛)
어린이画報
아빠日記
강아지 尚虛
父性愛 東園
苦難記 鷺山

어린이벗어린이날
寫眞속에남은것 金起林
山門을찾기까지 金泰洽
그날의作文句節 金永愛
찔레꽃꺾던時節 李淑鍾
나는다시가려오 林炳哲
고기반찬먹던날 金壽任
소꿉질하던時節 李花鳳

保育生活十五年回顧記 劉鉉淑

한없는어머니 李殷相
불상한내어머니 崔永秀

金活蘭論 吳天錫
金活蘭畧傳 徐恩淑
五月食卓

誌上映畵
내가슴에永遠히
도적맞은어린이

都市移動編輯 第一回 大邱篇
大邱民謠
大邱方言

大邱 性教育 一瞥
大邱女性界時感 張赫宙
大邱女性教育界

大邱文壇
봄밤
붉은엄마의노래 張德祚
玉梅花 金順鍊
東京생각 李禧珍
나의살림사리 柳順同
띠니미 이정순
福先伊 白信愛
達城高臺의名堂 蔣雲翁

ClibPDF - www.fastio.com